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보 도 자 료	KPIPA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26. 4. 15.(수)	배포	대외협력팀 이민주 대리 063-219-2746/ minju@kpipa.or.kr
첨부파일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성과공유회 현장 사진	담당	도서유통선진화팀 김승각 대리 063-219-2786/gak0422@kpipa.or.kr

‘지역서점의 변화와 성장 공유’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사업」 성과공유회 성료

- 4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참여 서점 모여 개선 과정 공유
- 지역서점 역량 강화 통해 문화거점으로서 가능성 확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 이하 출판진흥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4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사업’ 최종 성과공유회를 열고, 5개 권역 71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생력 중심 육성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 이번 사업은 일회성 문화행사 운영비 보조 중심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자료 기반 운영과 맞춤형 도서 추천(큐레이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형·온라인 중심 유통구조 변화, 서점 규모에 따른 정보화 격차, 점주 개인 취향에 의존해 온 도서 추천 편차 등 지역서점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진단-실행-재진단’의 순환 체계로 사업을 설계했다.

□ 사업은 5개 권역 153개 서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통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71개 서점에는 3차례에 걸친 맞춤형 심화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심화 상담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 북큐레이션, ▲마케팅・고객 운영, ▲시장 확대 등 4개 영역에서 개선과제가 부여돼

현장에 적용됐다. 특히 모든 참여 서점이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해 재고와 매출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기기 전환율은 68%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수기 장부와 경험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자료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서 추천에서도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중심의 단순 진열에서 나아가 재고 자료와 연계한 주제별 서가 운영과 독자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획형 운영 방식이 자리 잡았다.

□ 참여 서점들은 “혼자 고민하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전문가가 생긴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자료를 통해 서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업을 총괄한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규모와 입지, 출발 여건이 서로 달랐지만 모든 서점에서 자료 기반 운영과 기획형 도서 추천이라는 공통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서점의 경쟁력은 결국 고유한 콘텐츠와 안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김승수 출판진흥원장은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출판진흥원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자료】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성과공유회 현장사진 2매.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유통선진화팀 김승각 대리(☎
063-219-27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성과공유회 현장 사진**